# 朝鮮日報

二十三日夕刊八面

## 社說

### 基督敎會와 今後의 進路

#### 兩敎會合會에 臨하야

一

지난 十九日 二十日에는 開城에서 全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의 第七回大會가 열렷다 오는 二十三日에는 京城에서 西洋人을 中心으로한 宣敎大會가 二十四日부터는 南北監理派年會가 한날 京城市內에 열리어 年來로 懸案中에 잇든 南北監理敎會의 合同問題가 가장 代表的인 議案으로 討議되리라고 한다 …

## 平津地盤確保後는

# 石家莊까지 進出形勢

## 奉天軍의 今後方針

【北平廿二日發】 奉天軍은 昨夜외지 天津으로부터 楊村에 至하는 平津進出의 第一段을 完了하고 本日 第二段으로 北平에 入城케되엿스며 第三段의 津浦線은 德州외지 平漢線은 保定외지 平綏線은 南口외지의 警備擔任에 當하야 平津地盤을 確保한 後 다시 山西軍의 撤退狀況如何로 張家口로부터 石家莊외지 進出할 意嚮이라고 한다

## 奉軍 一千名 北平에 入城

### 第一着으로서 奉天軍第五

【北平廿三日發】 北平旅七十一團의 兵約一千名은 鐵甲列車로서 本日午前零時半에 北平西直門에 到着하얏다

【北平廿三日發】 奉天軍七十一團長常溫太氏는 鐵甲車中에서 記者에게 말하되 『第五旅는 大 … 에 到着하고 余의 部隊는 北平郊外平綏線 … 로 가라고 當地에 來하엿다 第五旅二列車와 旅長과는 今朝中에 北平에 入할 豫定이다』

# 奉軍의 敵對行動에

# 閻馮兩軍結局後退

## 一時形勢를 靜觀

【東京電】 石家莊으로 撤退한 閻錫山氏는 使者를 北平에 派遣하야 時局의 善後策에 關해 奉天派代表와 折衝시키는 中인바 奉派의 關內出兵에 對하야 最初閻派로는 中央擁護는 表面뿐이요 內實은 反蔣派에 好意를 有한다고 解釋하얏스나 最近 奉天軍은 大兵을 唐山, 天津, 北平, 馬廠에 分駐시키고 저 輸送을 開始하야 反蔣軍에 對한 敵對陣形을 取하고 잇슴으로 그 眞意에 對하야 疑念을 품고 馮玉祥氏와 그 對策을 協議한 結果 張學良氏는 德州 平津地方의 軍事配備를 完了한 後 北方派의 最後的 態度가 나오리라고 보아 우선 閻軍은 山西로 馮軍은 陝西로 集結하야 張學良의 態度를 靜觀하기로 決定하고 그 準備에 着手하얏다고 한다

## 國民政府代理首席

# 譚延闓氏逝去

### 黨葬으로 厚葬할터

### 後任에는 胡漢民氏

【南京廿二日發】 國民政府는 本日午後一時 譚延闓氏逝去에 對하야 非公式으로 發表한 後 朱子文氏以下六氏를 葬儀委員으로 하고 葬費一萬元을 支出키로 決定하얏다

【南京廿二日發】 國民政府首席代理譚延闓氏逝去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今朝臨時緊急國務會議를 開하고

一、譚氏의 葬儀는 國葬으로함

一、立法院長胡漢民을 國民政府首席代理로함

一、南京은 三日間全市中에 旗를 揭揚하야 弔意를 表케함

一、行政院長의 職은 副院長宋子文으로하야 當分間執行케함

等을 決定하얏다 그우에 譚氏死滅는 直接時局에는 影響업슬 模樣이다 (寫眞은 譚氏)

【南京二十二日發】 譚延闓氏의 葬儀는 國民政府最高의 禮인 國民黨의 黨葬으로 厚葬키로 變更하얏다

朱鶴翔氏로부터 閻氏의 命令에 依하야 北平外交處를 閉鎖하고 太原으로 移轉하얏다는 正式通告에 接

## 閻錫山氏가 外交團에 發電

### 外人에 不安업다고

【北平廿三日發】 閻錫山氏는 …

## 問題의 天津海關

# 結局中央서 回復

### 山西派唯一의 海關도

## 不過三個月에 消滅

【天津廿二日發】 天津海關은 本日奉天派에게 接收될터인바 前稅關長『베루─』氏를 强制的으로 驅逐하고 後任으로 드러안진 『신푸손』氏는 在任不過三個月로 또다시 『베루─』氏에게 내쏫기여 玆에 唯一의 山西派海關도 從前대로 南京政府에 歸屬키로 되엿다

打倒의 傳單을 市中에 配布하고 活動을 開始하얏다

## 平津兩市長

# 任命을 電請

### 中央政府에

【奉天廿二日發】 奉天軍의 平津地方出動에 伴하야 天津市長으로 刑士廉(現遼寧省政府委員) 北平市長으로 陳興亞(現東北憲兵司令)를 任命키로 하고 昨日張學良氏로부터 中央에 電請하얏다

## 山西派의

# 兩銀行閉鎖

【北平十九日發】 山西派의 機關인 山西省銀行及北方政府의 中央銀行이될 國家銀行은 十九日에 드되여 閉鎖되얏다

## 北平市黨部의

# 復活後活躍

【北平二十二日發】 昨日부터 復活한 北平特別市黨部는 本日數萬의 自動車로서 反動分子及共産黨 …

## 北方側의

# 外交處閉鎖

### 正式으로 通告

【北平二十日發】 外交團首席和蘭公使는 今朝十一時外交處長 …

## 第四次全體會議

# 國府서 開催準備

## 內部改造도 斷行乎

【南京二十二日發】 本日中央政府는 奉天軍의 關內出兵과 北軍의 總退却에 依하야 이미 軍事의 一段落을 보게되여 十月十日의 雙十節後第四次全體會議를 開하기로 內定하얏다 그리하야 戰後의 最大問題는 財政問題임으로 經濟會議에서 此를 論議하고 저 이미 開會를 準備中이다 그우에 譚延闓氏의 逝去로 國民政府部內에 大改造가 잇슬터로 蔣介石氏는 不遠歸京하야 國民政府의 陣容을 更新하고 行財政을 整理한 後 民心을 一新시키며 政治의 刷新을 圖謀할 方針이다

# 勢力擴大에 不拘코

# 今後對策이 益困難

## 南京側勢力과 馮軍對策으로

# 東北巨頭連日會議

【奉天廿一日發】 奉天軍의 平津地方進出에 依하야 東北派의 勢力範圍는 擴大되는 中인바

一、天津北平兩特別市黨部가 復活하얏슴으로 將來南京中央黨部로부터 委員이 派遣될 時는 同地奉天派의 政策도 次第로 中央黨部에 쓸려가게되며 國民黨部運動은 漸次東北四省에 侵入케되리라고 보이며

二、德州를 中心으로한 十數萬의 馮軍은 中央軍의 壓迫에 따러 北方으로 退却할수밧게 업서 此軍隊는 地盤如何에 不拘하고 河北省各地로 侵入할터인바 右二點은 勢力이 擴大한 張學良氏의 頭痛으로될터로 學良氏는 그 對策에 對하야 連日幹部會議를 開한 後 協議를 거듭中이다

## 各國駐屯軍

# 幹部協議會

### 暫時形勢觀望

【天津廿日發】 北中駐屯의 日, 英, 米, 佛等五個國軍幹部는 二十日午前十一時에 日本軍司令部에 參集하야 天津의 防備와 交通維持에 對하야 義和團事件議定書規約에 基하야 共同動作을 取할가 하는 與否를 協議한 바 當時形勢를 觀望하기로 決定하얏다

## 電信交涉의

# 日中正式會議

### 來月一日부터

【南京二十一日發】 日中電信交涉第三回正式會議는 十月一日 南京에서 行하기로 決定하얏다

## 關內出動의 奉軍

# 總數는 十三萬

### 萬五千은 발서 到着

【奉天二十二日發】 今朝四時 外지 當地에 到着한 奉天軍은 第五旅約一萬과 第二十七旅五千으로 그中三千은 楊村郎房에 駐屯하고 約二千은 津浦線으로 進出하엿스며 其他는 天津驛에서 待命中이다 그우에 第五旅長의 談에 依하면 今回出動할 奉天軍은 總數 約十二萬으로 그中 平津及津浦線에 配置될것은 約六萬인바 第一軍長于學忠은 二十三日에 到着할 豫定이다

## 治法撤廢에

# 英國은 留保

## 王外交部長主張에

### 英政府反駁을 命令

【上海廿二日發】 英公使 『람푸손』 氏는 王正廷氏에게 法權撤廢에 關한 英國案을 交附하얏는데 其內容은

一、民事訴訟은 中國法廷에서 審理케하나 英國領事가 判決을 妥當치 안타고 認定할 時는 判決을 取消하고 再審에 附함을 得함

二、刑事事件에 對하야도 今後五個年領事裁判을 續行함

三、上海, 廣東, 漢口, 天津等重要都市及其近郊三十乃至五十中里以內의 地域은 法權을 撤廢치아니함

이라는 것으로 實質的으로 法權을 留保하라는 것인바 中國側에서는 이미 不滿의 意를 表하고 中央政治會議는 王氏에 對하야 對英反駁을 命하얏다

## 東鐵紛糾는

# 白露人의 策動

### 露紙의 論評

【莫斯科廿一日發】 本日의 『프라우다』紙는 最近의 滿洲에 잇는 白系露人의 活動에 關하야 左와 如히 激越한 論評을 揭載하얏다

最近의 滿洲에 잇는 白系露人活動의 裏面에는 再次帝政主義者等이 操縱하야 東中鐵道問題를 紛糾케 하야 露中間의 親善關係를 破壞하고 또 極東의 平和를 드러하고잇다 또 『프라우다』는 … 『하바로푸스크』 議定書의 條項을 實行하야 左와 如히 力說하얏다

…勞農은 中國이 東中鐵道問題에 關하야 協定한 過般의 … 하야 滿洲에 잇는 白露人으로부터 武器를 奪取하고 그들을 滿洲에 追放하기를 要求한 것이다

## 豫算編成問題

### 斷然解決시킬 決心

## 濱口首相의 時局談

【鎌倉電】 樞密院에 大勝한 濱口首相은 當時보다도 餘裕잇는 週末靜養을 하기 爲하야 二十日午後三時에 自動車로 官邸를 나와 同四時四十分에 鎌倉別邸에 入한바 記者에 對하야 左와 如한 時局談을 하얏다

樞府의 手中에 잇는 倫敦條約은 二十五, 六日頃에 委員會로서 審査를 完了하고 本會議에 옴기게되는 바나는 無事히 通過하리라고 생각하며 또 通過하기를 期待한다 나의 이 期待는 何等具體的 根據를 가지고 잇지는 아니하나 나로서는 當初부터 가지고 잇는 主觀的 確信이다 …

## 留保財源은

# 補充減稅로 折半

## 首相藏相의 意向

【東京電】 軍縮剩餘財源에 基한 國防補充計劃及減稅計劃立案에 對하야는 前부터 濱口首相도 愼重考慮中이든바 二十五日에 樞府諮詢査委員會의 報告書決定을 기다려 閣議에 正式으로 意見을 開陳하리라한다 그리고 首相은 大體 軍縮會議參加以來로 政府는 國民負擔의 輕減에 剩餘金을 充當하기를 聲明하고 特別議會以來로 此聲明에 基하야 反對黨과 抗爭을 繼續하야 온 體面上 政府의 面目問題로서 相當한 減稅計劃을 樹立하여야된다 그리함에는 …

軍部側의 要求는 財部海相에 있서 統帥權을 尊重하고 留保財源五億一千萬圓은 될수잇스면 補充計劃과 減稅計劃에 折半하겟다는 意向이고 井上藏相도 亦同意見이다 그런데 海軍側은 軍令部가 參謀官會議의 經緯에서 强硬主張을 한 後 監政本部는 二業能力維持斬空本部는 潛艦劣勢補充에서 各各代艦建造, 空軍擴張을 强硬하게 主張하야 此內部統制는 相當한 困難을 豫想하게됨으로 事態에 依하야는 更又軍部間에 激烈한 抗爭이 惹起될것이라하야 憂慮中이다

## 某國關稅引上問題

# 日本도 反對表明

### 白國代表와 同一步調

## 國際聯盟總會서

【제네바─廿一日發】 『제네바』二十八個國聯盟總會第二(財政經濟)委員會 二十一日의 會議에서 伯耳義代表는 某國關稅引上한의 結果他國에 報復한 事實을 攻擊하고 繼續日本代表井上匡四郎氏亦此傾向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하야 左와 如히 말하얏다

『日本도 今日外지 關稅實質的增加를 하지아니하고 잇섯스나 他國이 依然保護政策을 取한다면 日本도 同樣保護政策을 取치 아니하면 아니되겟다 또 最惠國에 對하야도 重要한 解釋의 確答을 要求한다』

本日의 第一委員會(法律組織)은 昨秋聯盟理事會를 通過한 常設國際私法裁判所判事定員十一名을 十五名으로 增員하는 案을 可決하얏다 第三(軍縮仲裁裁判)委員會는 二十一日 被侵略國에 對한 財政援助條約草案을 採擇한 同時에 聯盟總會에 提出할 該條約最終原案起草委員을 任命하얏다

## 軍縮機運을 促進

### 佛外相의 大演說

【제네바─廿一日發】 佛外務長官『부리앙』氏는 大略今週中에 軍縮問題에 對하야 國際聯盟總會席上에서 大演說을 하야 聯盟의 軍縮準備委員會는 相當한 意見一致를 期待하고잇다 그리고 十一月의 軍縮機運促進의 道를 開하리라고 …

## 不共戴天의 覺悟로

# 反將軍事行動促進

## 馮玉祥全軍에 發令

【北平廿三日發】 平津地方의 時局은 一段落을 告하얏스나 馮玉祥氏는 어데外지 反蔣軍事의 貫徹을 期하고 閻氏가 正式으로 下野하면 山西軍의 一部를 어더 河南의 政局을 有利하게 指導하라고 決意하고 馮氏는 全軍에 對하야 不共戴天의 勇을 鼓吹하야 將軍에 當하라는 悲壯한 命令을 發하얏다 라 河南方面은 依然激烈繼續하리라한다

## 土耳其外相

# 莫斯科訪問

### 二十日에 出發

【콘스탄티노플二十日發】 土耳其外相『주퓌큰라시데베이』는 駐露大使『핫센카시프베이』氏와 함께 二十一日 莫斯科로 向하야 出發하얏다

# 中國軍閥의 將來 【四】

### 上海에서 韓哲生

目前의 混戰形勢로 말하면 津浦, 京漢三線의 主戰場에서 巨大한 軍費의 消耗와 兵卒의 死傷이 各各數萬에 達하야 彼此에 …

## 鮮銀支店存廢는

# 時期問題

### 勞農態度强硬

… 政府의 二個月餘에 亘한 鮮銀支店의 存廢는 時機의 問題로서 露國으로는 五個年計劃의 財政建立에 向하야 遂行할 模樣이다

## 辭令

▲奉天領事森岡正平命安東領事兼勤 ▲朝鮮總督府技師藤原商造 願免本官

## 八面錄

○鐵路署豫留事件은, 모다 釋放하고, 山積한 書類만 送局

○書類만이라도, 보내지 안흐면 섭섭한 模樣

○奉天軍은 平津地方으로 繼續進出

○蔣과 張──어느장에 맛장을 둘나구

○日本에는, 知識階級의 失業者가 七萬九千名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것인가

# 九月中 ―農家行事― 大小麥栽培法 (十一)

## 京畿道를標準하야

―擔當記者―

### 播種

**種의豫措**―播種前種子에麥黑穗를豫防하여야된다 黑穗에도다음과가튼種類가잇다

一、堅黑穗 二、裸黑穗 三、腥黑穗 四、小麥黑穗 五、稈黑穗等이잇다

黑穗는圃場에서發穗되는대로拔取하는것이効果가크며確實한方法이라고하겟다 그러나이와가튼方法을使用한다더라도 亦是黑穗가發生하는일이잇다 그래서種子에黑穗病胞子가附着할境遇에는 이것을豫防하여야된다 即黑穗(깜부기)는一種의病으로胞子의作用으로이와가티되는것임으로 이胞子가地面에떠러젓다가 發生하는수도잇고 種子에附着하얏다가發生하는수도잇슴으로 兩方面으로驅除하여야할것인데 이病菌이種子에附着하야 發生하는憂患을업시하기爲하야 다음과가튼方法을使用한다

(一)溫湯浸法―種子를華氏百三十度의溫湯에五分間浸漬하는것인데 幹黑穗(株나穗가全部黑穗로되는것)와밋小麥黑穗에는全혀無効하다

이方法을하자면爲先二個의大桶을準備하고 한桶에는華氏百二十度가량의溫湯을잔득부어두고 한桶에는華氏百三十度의溫湯을너어두고 엽헤다가冷水와溫湯을準備하야 何時던지加減할만치設備하고 다음에다라키에다種子를넛코이것을溫暖케하야桶에다넛는다그리고이것을휘저어서잘混合식히는것인데 아즉鹽水選을하지아니한것은 多少種子가上部로뜨게됨으로 이것을除去식히고다음에다라키를쓰내너는溫湯桶에다넛는다 그리고浸桶에는溫度計를準備하얏다 湯의溫度가百三十度되는지안되는지를 檢査하야 必要에應하야 冷水와溫湯을適宜加用하고 百三十度가되도록한다이와가티하야여기에다 五分間가량담가두고 다라키를上下하야 內外의溫度를 一樣케한後쓰내서멍석에다 펴너러말인다(陽乾을할것) 그리고浸液中은一定한溫度를 保全치아니하면豫防의効力이減한다

二、冷水溫湯浸法―裸黑穗及小麥黑穗의 胞子는 勢力이 强함으로 먼저說明한溫湯浸法으로는 死滅치아니함으로 이方法을使用케된다 即種子를六時間가량 浸水하야두엇다가 다시이것을 華氏百三十度의溫湯에 五分間浸水하야둔다이法을施行하는데는 爲先통을잔득차게부어둔桶에 六時間種子를浸永하야둔後에 이것을適宜의量으로나누어 채그릇에다옴기여 溫湯浸法과同一한手續으로 큰溫暖케하야 다음에浸水桶에 먼저더웁게하야 桶에넛코種子너어五分間經過한後에 쓰내서멍석에펴서 陽乾한다種子를水桶에당거둘때 밤十二時에施行하면 翌日午前六時부터溫湯浸을行할것이오 早朝에浸水하면當日正午頃에 溫湯浸을하게됨으로 種子의量에應하야時刻을定할것이다 浸水時間은 六時間以下는効果가업다고하나 八時間以上浸水할必要는업다 大麥及裸麥에는堅黑穗와 裸黑穗와의兩者가同時에發生하는수가잇다 이럴때에는冷水溫湯浸法을 施行하야 裸黑穗를 豫防하면堅黑穗도따라消滅하게된다

### 播種量

播種量의多少는 結局苗立의疎密을支配하는것임으로 種子의數數에따라 適量이될것이다 보리는種類에따라成熟의 狀態에따라粒의大小의差가잇다 그럼으로는 理論으로는小粒은 多量이될것이오 大粒은 少量이될것이다 大體로播種量이大麥은普通三升乃至六升가량으로 四五升이가장 普通이라고하며 及小麥은三升乃至五升으로 三四升을普通으로한다 無芸播種量은踏種의事情에따라 經過가잇슬것인데 即氣候의寒暖한곳은暖地보다 多量이될것이오 特히作業의粗雜한곳은 一層增量할必要가잇다 境遇에依하야는七八升乃至一斗이라는 多量을播下하는수도잇다 以上은條播할境遇이오 點播할때에는 二三割적을것이다 그런播種期가느진境遇에는 그救濟策으로 播種量의增加는매우有効한것이다 그리고春播할때에는 多少厚播를하는것이좃켓다 南朝鮮地方은太暖春播를하고 乾燥가甚함으로發芽치못하는일이잇다 이와가튼關係로厚播를할것은免치못할事實이다 그러나너무厚播에지나치게되면 莖葉의繁茂로하야倒伏하야질念慮가잇슴으로 適宜하게間拔하야주면좃켓다

# 文字普及班消息

## 새막에서부르는한글노래

### 婦人네들도와서배운다

利川郡暮加面松谷里 發正 柳達永

先生님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저는 比較的開始日字가늣게되엿습니다 歸家即時着手하려하엿스나 暗暗한山谷에助力할동무조차업사와 一個人으로 한終日 勞働에疲困하여도라와잇는그들을 一一히訪問하고 貴社의고마운뜻과 내의意見을들어서 八月初旬에야約四十名의人員이 募集되얏습니다 于先칠판부터어더야겟는데 山谷인고로 學校도멀고 (二十五里) 일이意見것되지안은곳 近洞書堂에칠판이잇다함을듯고 喜悅에못익이는저는 곳그곳을訪問하하고 先生에게事情을말하야 數日後頑問하신 先生의許諾을어더가지고 八月八日밤에 너른마당에서 開學을햇습니다 다음날에는 求景군이百餘名에達하더니 漸漸增員되어 三四日內에 近洞에서通學生外지 五六名가량되여 總數가五十二名에達하엿습니다 그들은 어둔밤에缺席하지안엇습니다 어둔밤險한山골길을차저 눈을뜨려고오는이들을볼때마다 저는집생에넘처울엇습니다 漢學者이오頑固하신父親이시나 덕덕지못한집에서 저녁마다 기름을쓰고白墨을사게 돈을달라고해도少毫도괴로운말슴이업시 김버하시는뜻퍽으나感謝하엿습니다 마당에서는비록남포불로도글자를보기에困難하여崔鍾鎬君의二間半의사랑을어더그곳에서繼續키로하엿습니다 저녁마다마다내옷과그들의옷은모다젓게되엿습니다 어린少女五六名이삼도안코

꾸준히알어감니다 七時부터十時外지 學科이고그사이에는十五分間의 休暇를주엇습니다學父兄들도 날마다날마다모혀뒤에으로배웟습니다 아즉도暗暗하여「가갸」「거겨」부르기 가창피하다는까닭이겟지요 그中에婦人들로 每日오는이도 多數이엇습니다 나종에들으니까그中에서 깨치니도만타는말에나는퍽으나깁벗습니다 나의二十日間의勁力을回顧하고 낫에는모다들에나가 일합니다곳곳새막마다「가갸」「거겨」의소리가들릴때 이가슴은깁붐에뛰엿나이다 더구나學父兄에게마다一一히付託하여 그날그날배운것을꼭꼭집에서 일키우도록하얏습니다낫에 우리집으로차저오는동모도만엇습니다 매우힘들이라고 생각하든바 쉬웁게깨친에퍽으나 신긔하엿습니다 豫想보다成績이 매우조음을깨달앗습니다 至今새로히昨年에努力못한것을恨합니다 十餘日後부터數字를가르쳣습니다 퍽들쉬윗엇습니다 千字를읽은아희들이만흔까닭입니다 그리하야算術의쉬운加減法을가르치고 十一時가 지나면압沙場으로總出動하여便을갈다 씨름을하기로하엿습니다 처음에는수집어別무잘들안이하라하드니 날이갈사록그들은 先進하여밤마다가는새를키워감니다 아참진한시골동모들! 아ㅣ눈뜨는그들 힘잇게자라는그들 貴社의事業을더욱더욱感謝히녀이오며 나날히繁榮하시기비나이다

# 栗谷先生의詩調를읽으며

## 敎育에굶주린모양을볼때

### 感激의눈물을흘리게되여

全南靈岩郡新北面茅山里 柳寅哲

日氣生凉하온이때에 貴社여러분들安寧히을게시는지요 저는貴社의거륵하신事業의萬分之一이라도돕기위하와 이참에 文字普及班員의一席을차지하게되엿습니다 開講은웬신는저서 八月八日에하엿습니다 우리시골은純農村인關係上 晝間은 도저히不可能하와 夜間에만하게되엿습니다 應募人員은 七十餘名에達하엿사오며그全體가 다男子이엿습니다 場所는洞有公廳을빌엇사온데 使用禁止와안인밤중에洞中을騷亂케한다는問題로 큰寃쓰신량반에게몃번이나 야단을當하얏습니다그의참光景이야말로 形言할수업섯스나꾸준하게繼續하여서하엿습니다 그동안人員數는漸漸줄어들어서完了日인 九月五日에는 겨우五十九名이남엇습니다 閉講하든그날밤에 저는한글詩調

「태산이 높다하되
한울알에 뫼이로다
오르고 또오르면
못오르리 없것만은
사람이 제않이오르고
뫼를높다 하더라」

의栗谷李先生작을쓰내어 說明을하여주면서 한글을熱心히工夫하엿드니 어둡침침한石油람프불알에서 한번씩읽어보고는무엇을깨다른듯이 상투쟁이講習員들이 고개를쓰덕쓰덕하든그激育에굶주린貌樣을볼때에 참으로感激의눈물을흘리게 하엿이다 보고싶믈눗게보내드려서 未安하외다뭇으로 貴社여러先生님들의健康을빌며올리나이다

# 安邊瑞谷面民

## 水害同胞同情

【安邊】함남안변군서곡면민(安邊郡瑞谷面民)들은지난칠월십팔일 풍수재로막대한 잘해를당하엿슴에도 불구하고 방금먹고입고의 저할곳에 업서 비참할황한여정에서 불쌍한 동포를 하여가는수십만 재해동포(災害同胞)를 위하야우리는안숙안식는한다 그동포를 위하야할바가잇다』 그가튼결심으로 건후근백여면니사와 다음과가튼잘다운동정금(同情金)을그곳면당국에의뢰하여 건선각지 재해동포(全鮮災害同胞)에게 삼시사원이십전(三十四圓二十錢)을조선사회사업협회 함남지부(朝鮮社會事業協會咸南支部)로보내고 또사십오원오십전(四十五圓五十錢)은 안변군내재민을 위하야이와가려총액칠십구원칠십전을모와보내엿다고 하는바 이는참으로그동정의돌란복치아롤수업다한다

◇三十錢 金根能 文炳洙 李龍文 張鵬龍△五十錢 李根培 姜允楨 申求來 金龍九 金寬俊 李爽冠 朴雲鶴 李秉龍 李元稙 裵處淳 周達殷 朴普鉉 朴彦 金濂信 崔秉斗 金炳奭 金炳肖 金鍾獲 崔義鉉 梁鳳基 李基鉉 姜吉鉉 裵錤鉉 兪宗穆 金秉來 金炳烈 金鍊乾 金炳律 殿錫富 徐炳鎔 金鍾裕 李成三 嚴能謙 朴根榮 文時彬 李昌寅 李昌根 李聖寅 李貞夏 李齊球 吉元亨 吉元瑞 韓龍鎬 周達源 周達豐 金澤性 徐萬善 高炳元 黃龍珠 梁國煥 姜海錫 李寅濬 金鍾三 兪炳燦 尹基俊 金澈基 崔禹鉉△六十錢 李大鉉△七十錢 李禎周 李在煥△一圓 金益鳴 元鳳善 李駿榮 周冕鎬 李致均 朴祜秀 金澈膴 兪鍾穆 朴時濰 元輸 吳錫寬 魏禎斌 金利集 李麵培 元鴻喜 方鋪澤 徐炳鎔△一圓五十錢 李錫來 李鳳變△二圓 金炳熙△三圓 尹錫根 李龍朔△五圓 梁宰善 金東奎△十圓 兪明瀫 以上計七拾九圓七拾錢

# 出版消息

九月十一日分 圖書課納本

神學世界(河鯉泳) 普仁月報(金東遠) 별(星) (朴準鎬) 京城性慾戀愛結婚問題로無産靑年에게與함(趙哲英) (以上朝鮮文)

朝鮮研究(梁村奇智城) 江原稅務(坂部信治) 深光(秋月致) 鷄의醫(重松𬹀修) 鮮滿之鐵道(大平多女助) 朝鮮庶民金融 (尾崎關太郞) 靑邸(福間俊正) 現物中値表(市川幸次郞) 福德無盡時報(藤野尙治) 羅南支部報(鈴木若雄)(以上日本文)

九月十二日分

鐵筆(林仁植) 할홈(盧佺亨) 子새론(黑布三悅) 朗讀文 (第三次)(吳璧) 離新郞(金東縉) 中鮮民報(張百忍) 南平文氏派譜(文錫憲) (以上朝鮮文)

滿鮮情報(鳩田仙助) カリタゴ(松村正助) 朝鮮財務 (津田宗太郞) 交通과自動車 (胡山澄) 心之友(大浦貫道) 朝鮮之水産(匯谷政鶴) 調査彙報 (松本源作) 同民(稙松通太郞) 京城物價타임스(尾崎勝三郞) 中等敎育國文讀本(前田卯三郞) 天德鑛泉使用心得(森軍吉) 最新포켓트鮮語會話(岡原七郞) (以上日本文)

九月十三日分

個人傳道學(許仁守) 印度의聖者싼다ㅣ씽ㅣ瞑想錄(謹是) 改良麥作五倍增收法(權聚永) 京鄕雜誌(楊秀易) 會衆(洪濟裕) 慶南時報(永井照雄) 錦南月報(宮軍嘉一) (以上朝鮮文)

電氣事業要覽(矢野定市) 朝鮮語講義(水野鎭一) 斯響 (岩田壽二) 朝鮮庶民金融 (尾崎岡太郞) 禪心(光正覺哲) 立擧 (宮內修次) 會報(佐下橋鐸次郞) (以上日本文)

九月十六日分

朝鮮物産獎勵會報(明濟世) 民聲新報(金剛錫) 朝鮮實業彙報(李在燾) 中學講義錄(洪世鼎) 서양요리법(君芮彬) (以上朝鮮文)

京城帝國大學學報 (京城帝國大學) 譜(鈴木鎭嶽) 道(山下良右衛門) 黃海道農會報(玄東川三次) 朝鮮警察法令集兵事關係上卷追錄 大邱의商工(橋津良雄) (以上日本文)

# 紅樓夢 (一五五)

洌雲 譯 夕影 畫

【悼曲文寶玉借謎機(九)】

가정이 다시알에를 나려보니 대옥의것인데

『조취를 파하매누가 두소세에연괴를끌가
거문고人가와 이불속엔서로연분이업도다
새벽닭을 닭이고할것도 업슬것이요
깊은밤에 시녀떠라 떠하라수고시질것도업다
아춤과 저녁으로머리를태우고낮과 또해로 속을끌히운다
팡울이 빠르매 맛당히 앗길것이니
풍우와 음청은 변하는대로말겨두어라』

(한물건으로)

가정이 『이것은 경향(更香)이아니냐』 하니 보옥이가 대선『비』하고 대답하엿다

【註】경향(更香)은 옛날에시간가는것을 알기위하야일정한시간에 다도록 향을맨들어서 피우든것입니다

가정이 또보니

『남쪽하야 안즈면 북쪽하야조회하는데상(象)이 깃버면 또한깃버하고 상(象)이근심하면 또한근심한다』

(한가지쓰는물건)

가정은

『조타! 조타! 거울이라고발하면퍽묘하겟다』

보옥은『그럿습니다』하고 엿주니 가정이 『이것은이름이 업스니누가지은것이냐』 뭇는데 가모가『이것은 아마보옥이가 지은것인가보다』 고하니가정은아무말도아니하고 그알에로다시보차의것을보앗다

『눈에는 동자업고 배속은비엇는데
련꽃이 물밧게나올때 서로맛남을실겻스나
오동잎떨어질때 이별의슬품어이할가
은정이깊든 부부도 겨울까지는가지를못하리라』

(한가지쓰는물건)

가정이 이를보고마음속으로

『이물건은 그대지변변치안흔것인데 이런나어린 아여가이런 소리를 한단말이냐 이때건데욱 상서롭지못하다이때까지본것이 모두복과수를누리자못할것들이다!』

이처럼생각하매 저절로 마음이퍽번민해저서 매우언짢흔긔색이잇섯자마는 다만고개를숙이고 깊히생각만을 하얏슬뿐이엇다

가모는 가정의이와같은 긔색을보고 그가아마 몸이고달퍼서그러하나보다하고 또 저여러자매들도 구속되여 흥겹놀지못하는것을 생각하야 곳가정이더러

『너는 끝까지 여긔잇슬것은업스니 가서쉬여다 우리들은 한동안좀더안잣다가 역시곳헤지겟다』

가정은 이말을듣고 얼는

『비 빈』

대답하고 또 그런대로 가모에게 술한번을 권하고나서그제야 물러나왓다 자긔방으로돌아와서는 곰곰히 이리저리생각할스록 어쩐지처량한을의뭘수업섯다

여긔서 가모는 가정이가나간뒤에

『너의들은 마음대로 좀놀아보아라』

하니 이말이맛히기도전에 보옥은 뛰어서 평풍놓앞으로나와 손짓다리짓을 해가면서입에서나오는대로 비평을해낸다

『이것은 이한귀절이 조치안코 저것은 갓다가댄것이들어맛지안는다』

하엿다 봉저가 안방안으로부터 나오면서 말을달아

『이사람이야말로 그저노야께서 매일존보도떠나지마시고꼭다리고 저서야만조하! 아까 내가깜박잇엇지! 내가 왜노야계실때에 말슴을엿주어서 수수걱기시(詩謎)를 지라고하시게 아니햇는구? 그랫드면 지금쯤 땀을뻘뻘흘리는꼴을구경햇겟는걸!』

이말에 보옥은 긔급을하면서봉저에게 매어달려서 한동안실랑이를하엿다 가모는 또이궁재(이환)와 여러자매들을다리고 한동안이야기하다가 몸이고단함을 깨닫게되자 별서사경(四更)치는소리를 듣고

『음식을 물려다가 여러하인들에게 나우어주라』하고 일어스면서

『우리인제는가서쉬자 래일도명절이니까 좀일죽일어나서하지 래일저녁에 다시놀아보자』

하엿다 이에 여러사람들은노친천아 다헤저갓다

# 부인

## 호열자는 가을에발생한다
### 첫예방으로는 위장을튼튼케함이제일

요사이각신문지상에는상해등시에 호열자환자가 발생되엿다는것을 보도하고 잇슴니다자조하는말입니다만 가을철에는이때까지덥던날긔가 감작히

아 기층서녁으로찬바람이석기게됨으로우리몸의더위는 밧게잇는찬긔운에 빼앗기게됩니다 뜨아서 빼앗긴체온을보충하기위하야 안으로는 신진대사가왕성하게됨으로자연히식욕이 더하여집니다 동시에이때까지 활동이 그다지심하지안튼위장은 갑작이만히 드러오는음식물을 소화식히기가어려워 드듸어위장이낫버지고맙니다다만 아니라 가을철에는 여러가지과일이만허일반으로 과식하기도 쉽고식체가튼것도만습니다 뜨아서 장질부사적리

리 질가튼 무엽병균이위장의약한틈을타서침입하기쉽습니다 중에도 무서운것은 호열자이니 이병은 느진녀름으로붓터가을두사이에 제일 생기기쉬운병입으로 일반으로 주의할것은물론이며 더욱 상해등지에서 오는입에환자가잇슴으로각가정에서는 위장을튼튼히 하도록한층더주의할것입니다 호열자는본래상해가 발원지이며 불과하로잇흘동안이면 상해로부터 조선에몰려올수잇서 조금만 방심하고잇스면 병균의침입을 당하게됨으로 늘 위장을 튼튼히 갓도록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위장을 해하지안토록 주의하는동시에 조금이라도위장이 약해젓슬때는 곳치치를 해야합니다 우선위장이 좃치안타고 생각되면

곳 절식을하고 설사를할때는 설사케를하서 위장안에잇는 좃치못한 것을죄다내여 보내도록 해야합니다 리질의처음증세는압작이고 가업서지고 하품을하며 조으는것가티 권신의피로를 늣기게됩니다 다음계속하여 삼십구도내지 사십도가량의 신열이납니다 이때는곳오구람내지 십오구람가량의 피마자유를먹고 의사의진단을밧는것이제일안전합니다

## 여러가지식료품의 간단한감별법(三)
### ……주부된이의상식으로

**다음** 보리쌀은빗갈이희고광택이잇스며잘마르고 쌀맹이가고르며 무게가무겁고 악취가업는것이조흔것입니다 또밀가루는 무엇보다도 빗갈이희고 광택이잇서야합니다 또가루가 고울스록 (부드러운것)조흔것이며 잘마르고 냄새가업스며 벌레좀이가지안은것이라야합니다 또전분은 만흔것이조흐나 당분(糖分)과 그외의 담백질은 될수잇는데로 적은것이 좃습니다 즉당분과담백질은 습긔를밧으면 곳숙어서 덩어리가되기쉽습니다다음

**밀가** 루중에대맥(大麥)강냉감자가루등을석는것이잇스며심한것은 점토(粘土)를석는일도 잇슴으로주의해야합니다 물론그런것은 현미경이아니면 검사하기 좀어렵습니다

생선은 물론조흔것은악취가업서야 합니다 다음은아감이가선명한 붉은빗갈이나며 눈은투명하고 광택이잇습니다 또비늘도 광택이나고 굿게붓허잇스며 살이단단하고로손으로 눌럿다가노하도 곳다시 불너집니다 화학적 감별법으로는 상한것은암모니아냄새의 알카리성반응을이르킵니다

조개류에 속한것은 일반으로 섬유조직이 생선과달러 단단하고도 질깁니다 뜨아서 소화도 오래되며

**더욱** 상하기쉬워중독이 되기쉬우며또산란긔(産卵期)중에는 대개 독을갓고잇슴으로 주의해야 합니다굴가튼것은 보아서 흉한냄새가나지안는거면 상한것은 아닙니다 그산란긔는 오월부터 팔월까지입으로 그동안은 먹지말어야합니다

새우류(蝦類)에속한것은 첫재로 머리가 똑똑히잇고악취가업스며 얼굴이 검지안코꼬리에탄력이잇는 것이라야 합니다 산란긔는대개오월부터칠월사이입니다 게이(蟹)는 특별히쉬상함으로 산것을 사다먹도록해야합니다 또무거워야하며 오랜것은고기가 물이되여바그로 흘으므로중량이가벼웁습니다 또뚝게가연한것은 좃치안습니다 또 산란긔는사월경입니다

## 第二回 舞踊發表
### ◇十月中旬에

녀류무용가 최승희(崔承喜)양은 이데이회신작무용(新作舞踊)을 발표하고자 여러달을두고 준비중이든바 오는십월중순경에 공연을하리라는데 특히 무용소를 이전하고 새로운무용가를 양성하기위하야 지원자를 모집한다는데 이러서울분이가지고 가서분의향을 바란다하며 이전한 무용소는아래와갓다한다

市內積善洞一九五番地

## 라듸오 廿四日

午後〇時三十分氣象槪況 各地天氣實況 〇時四十分國產品愛用宣傳小唄 一時三十分京城坐唱及才談(一)青春歌外朴春載 二時〇分뉴-쓰 五時四十五分라듸오體操順序發表 六時〇分 放送舞蹈劇(大阪) 七時十分뉴-쓰 七時二十五分講演 七時五十分連續講演 八時二十五分極(朝鮮語)化猫尹白南 八時五十分浪花節(東京) 九時三十分氣象槪況 時報

## 노벨상을바든 운셋트부인 [2]
### 세계부인투사소개

□=一九二〇년도의노-벨문학상은「놀웨-」의 녀성작가「시그릿드•운셋트」부인에게 수여되얏습니다 노-벨상은 一九〇一년으로부터 시작되야 매년권위원이 이를뽑는것인데 특출한 희곡가 력사가 시인 사상가에게 막대한상금이 내리는것입니다 一九二八년까지 스물여듧사람이 상을탓스니 그중에녀자로는 겨우 세사람뿐입니다 이예스런상을탄「운셋트」부인은 그중에도 문학에뜻을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도할만합니다 운셋트부인은 一八八二년五월二十일「정말」의「카룬드티르」에서출생하야 지금은 고인이나고고학자(考古學者)로 유명한「인구왈마두친•운셋트」란사람의딸로올에 마흔여듧살먹은 녀인입니다

□=부인은 어렷슬때부터「놀웨-」의 력사연구에 흥미를늣겻든것은 후년에 그의작품이모다력사를 토대로하얏슴을 보드라도 명백한일이나 이는오로지 부친의시도와 취미의 유전으로 봅니다

□=학자아버지를가진부인의 가정은 가난하얏기때문에 소학교는겨우엇더케 맛첫스나 열일곱살되든해에는 집안살림을 도읍기위하야 시역소(市役所)에 일자리를어더 그후십년간근속하얏습니다 이동안에 소설력사문학을연구하얏섯고 작가로 출세하기는 엇더한때「스톡홀름」의 신문이 현상소설을 모집하는데「투사•오브리부인」이라는처녀작을발표하고 그후부터 아조문학생활로들어갓든것입니다

□=부인의작품은「인생은 괴로운것이지만 신(神)이 결정한 운명이다 인간은 이시련에의하야 신과가티 변화한다 바른길을 것고 불행을견듸고서로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야 나가는데에인류의 목적하는리상이잇는것이다 그바른 신만이 우리를가르켜주신다 오즉신을밋고 인생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인생의 리상이오 그것으로 인생은 구원을엇는다」라는 신념의 과리상으로 내용이되야잇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이엔유이•크리스찬•라브란닷텔」등이 가장유명합니다 지금도 쉬지안코 집필을한다는데 세계적으로 만흔귀며를 한몸에 걸머지고잇다합니다

## 童謠 다시세우자
金憲林

오늘은 팔월에도 스무여듧해
우리집 비바람에 문어지든날
뜻잇고 따암가튼 어른농무야
밝엇고 뛰여나와 두손을잡고
문허진 우리집을 다시세우자

## 가을밤
全鳳楠

가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고요
풀버레 실-실- 노래불러요
○
하날우엔 별들이 반짝이고요
바다우엔 고기배 불반짝이오
-(고향생각하며)-

## 우지마라누나야
洪九

◇
공장서 내여쫏긴 누나혼자서
무서운 행낭뒤골 어둘때까지
한종일 밥도굶고 생각하얏죠
엇더케 내일부터 버리를할가
◇
하날엔 별도총총 수효도만코
공장누나 가슴엔 눈물도만치
한종일 울고울고 또울엇지만
지금도 손녹잡고 눈물흘리네
◇
우지마라 누나야 집으로가자
압바도 청안내고 분이역일걸
어린동생 쒀는손 힘이날뛰여
집으로 달려가는 둘의그림자

겨우열한살밧게안된 리소년의대담한필치입니다

## 어린이조선
### 동화 거인과소인【中二】
禹庸信

이름을 지어준뒤에 도라가자긔 친구인 요술쟁이 할멈들을 창해 다섯곳「톰」의 옷을 짓기기작하얏습니다 가락입흥으로 모자를맨들고 거미줄로 바지저고리를짓고 쩔래쏫술로 두루매기를짓고 얄분능금껍질로 버선을 맨들고 요술쟁이 눈섭으로 허리띄를 맨들고 다람쥐가죽으로 외투를 맨드러서 톰에게 갓다입혓습니다 아모리자리도 톰은그아버지의 엄지손가락만 밧게는더자라지 아니햇습니다 그러케작엇지만 지혜는 보통사람보다월등이 나엇습니다 동네아희들과콩을 튀기기내기를 하다가자긔콩이다업서지면 감안이 동무아희콩주머니로 드러가서 살그머니 콩을꺼내오고는하엿습니다그러다가 하로날은 동무의콩주머니로드러가다가 고만 들키고말엇습니다

「톰아! 요녀석! 인제 붓잡엇다 여태것 우리들의콩속인죄로 이러케하겟다」

하고 그아희는 톰을콩주머니에다가 집어넛코 노내끈으로졸나매엿습니다 그러고 콩주머니를한참이나 뒤흔드럿습니다 톰은콩주머니속에드러가서한참이휘둘리고나니정신이어질어질하고숨이 꽉꽉막혀서못견댈시경이엇습니다 톰은할수업시 사람살니라고애걸을하야서 겨우콩주머니속을 면하고나왓습니다 또몃칠이아니되어느날 톰은자긔어머니가 쌍을맨들려고 양푼에 밀가루반죽 해노흔것을 무엇인가 궁금징이나서 양푼전더구리를 붓잡고긔여올나가서 드려다보다가 그만 발이밋그러지며 톰은밀가루반죽한속으로 빠저버렷습니다 톰의어머니는 톰이빠진줄은 조금도모르고 밀가루반죽을 쌍맨드는솟헤다가넛코 불을때엿습니다 톰은아모리소리를 질르려하얏스나 밀가루반죽이 입으로드러가 조금도목소리가 나오지아니하얏습니다 그러케애를 쓰는동안에 점점쌍분이가 뜨거와오기시작하야 톰은견듸다 못하야서 밀가루반죽속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하야 한참이나 야단을 하얏습니다 톰의어머니는 쌍을 맨들다가 쌍속에서 이상하게도 이리불쑥 저리불쑥하고 쌍이솟속에서 이리저리 왓다갓다함을 보고 이쌍이필경 독개비가붓허서 이러는것이라생각하고 다른 그릇에쏫아서 지나가는거지들 내여주엇습니다 거지는 쌍을바다가지고 조화라고 호주머니에다가넛코 얼마쯤가는동안에 쌍속에든 톰은애를써서 겨우입속에드럿든 밀가루반죽을 토하고 어이어이울엇습니다 거지는 호주머니에든 쌍을내여 만저노고는 조화하다가 쌍속에서 아희누름소리를듯고 입작놀내여 그만쌍을내동댕이를치고 뒤도도라보지안코 다라낫습니다 내여동댕이치는바람에 쌍은두쪽에 나면서그속에 드럿든톰은 겨우쌍속에서죽을것을면하야나왓습니다 겨우 목숨을살어가지고 톰은집으로도라왓습니다

## 가을류행

이가을류행으로는 단연히백파-셴트의옷고름을낙하버리라고한다

# 過多柴의 採取를嚴禁

## 겨울살림에 걱정되는 나무를 쌔지못하게해 郡民의 非難藉藉

【江華】 강화에 일반농가에서는 시초채취할 시긔를 당하야 십여일전부터 예년과 가티 각촌에서는 산에 시초를 밧부게 쌕든 중 일전에 군당국으로부터 이것을 엄중히 취체하며 또는 이 압흐로도 가닥나무를 절대로 못쌕게 엄금하야 일반군민들은 크게 소동되여 군당국의 가혹한 처치에 대하야 비난이 자자하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건대 원래 농가에서는 매년이 쌔를 당하면 시긔가 시초쌕기에 가장 적당하고 또는 이 쌔는 잠시 농한긔 인고로 이 시긔를 리용하야 산의 시초를 쌕거 엄동설한을 지내며 또 일년간 쌔일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 재래의 관습이라 금년에도 예년과 가티 시초를 쌕든중 일전부터 군당국에서 돌연히 이것을 엄중히 취체하야 가닥나무를 절대로 못 비게 할 뿐 아니라 가닥나무를 빈자에게는 처벌하겟다 함으로 일반농가에서는 십여일전부터 시초쌕기를 시작 하야 누구나 잇쌔까지 가닥나무를 바치지 아니한 사람이 업는 상태이라 지금에 이것을 처벌한다 하면 처벌을 하니 당할 사람이 업다고 일반은 크게 불안을 늣기며 시탄은 이 간생활에 하로라도 볼 가결할 물건이라 더욱히 엄동설한에 쌔지 안코는 못살 것인대 이제 군당국에서 례년에는 묵허하야 시초를 쌕든 것을 금년에 갑작이 엄중히 취체하는 것은 넘우나 가혹한 처치이며 또는 이 엄중한 취체가 오히려 삼림도벌자를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소위 삼림령은 일반민중의 복리증진을 위하야 제정한 것인 것이라 이 법령의 집행자인 군당국은 그 법령의 제정된 정신이 어듸에 잇는가를 충분이 연구하야가 장의 외잇게 활용하여야 될 것인데 이가티 가혹하게 삼림령을 적용하는 것은 군당국자가 너무나 몰리해한 처치이며 횡포적 행동이라 하야 여론이 비등하며 압흐로도 군당국에 처치를 크게 주목한다 한다

# 中人拳銃强盜 龍岩浦에出現

## 금품이백원을절취도주 警察은犯人嚴索中

【龍岩浦】 십구일 오후구시경에 평북룡암포(龍岩浦) 중국인 란무헌(欒茂軒)이라는 사람의 상점에 중국인 강도 세 사람이 륙혈포와 곤봉을 가지고 침입하야 주인을 협박하고 현금칠십원과 중요한 의복 시가 약일백삼십원 가량 어치를 쌔서가지고 동구시 반경에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들은바에 의하면 이 강도단은 대안조씨구(對岸趙氏溝)로부터 온 형적이 잇다 하야 당지 룡암포경찰서 형사대는 불면불휴로 수사에 노력하고 잇스나 아직 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이라 한다

# 嬰兒壓殺을 常習하는寡婦

## 사십세먹은과부

【安州】 평남안주군신안주면(平南安州郡新安州面) 원흥리 일백이십사번지에 사는 최찬준(崔贊俊)(四二)이라 부르는 방금 당시 경찰서에서 영아압살사건(嬰兒壓殺事件)으로 인하야 엄중한 취조를 밧는다는 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긔 과부는 동소에서 로동자의 밥장사를 하고 잇든중 신안주역에서 고용으로 잇는 김영호(金永浩)가 역시 긔숙하든 바 이 두 사람사이에는 피차에서 로 눈이 마저 남의 이목을 피하야 정교가 잇섯든 관계로 결국 임신하엿든 중 지난 팔월 이십구일 오전네시에 자긔 집변소에서 아이를 나은 후 곳 세상이 붓그럽다 고 압살한 후 부근 흑연공장(黑鉛工場) 우물에 던진 것이 당국에서 알게 되자 곳 전긔 범인을 체포하야 당지경찰서 김사법주임(金司法主任) 손에 엄중한 취조를 밧는 중이라는데 전긔과부는 작년에도 이와 가티 영아를 압살한 일로 삼년간 집행유예를 밧고 이 든 신분으로 서금번에 또 범행을 하야 일반은 그의 행동을 타매한다 고 한다

# 金泉電燈은 大邱서卽接送電

## ◇지난이십일부터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에서 얼마전부터 대흥전긔회사 김천지점은 다년간 팔측 전력을 송전하면서 석측 대금을 바다간 것이 김천상공회측에서 전력을 조사한 결과 과연 사긔한 것이 발각되어 상공회측에서는 그동안 사긔한 전력 환산대금을 일반 점등자에게 환부하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뿐 아니라 수용자 대회에서 선정한 대표위원을 총독부 체신국에 파견하여 전력검사요구를 하는 한편에 또 한편으로는 대구에 파견하야 각변호사에게 법률상 처치할 사항을 엄밀히 심의한다 고 함은 이미 본보에 보도한 바와 갓거니와 이제 동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광력(光力) 부족하게 된 것은 전연 회사측의 실태로 이에 대하야 창도(滑道) 대발전소의 공사가 준공되여 송전할 때까지 대구에서 송전하기로 한 후 수일전부터 대구에서 전공들이 래금하야 림시 공사를 하고 잇든 바 드되어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이십일부터 매구에서 송전한다 고 한다

## 錦町東便은大邱 西便으로는金泉

【金泉】 별항보도한 바와 가티 지난 이십일부터 대구에서 전긔를 직송한다 고 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대구에서 직송한후로는 전등이 정당한 촉수의 광력을 가지고 잇다 고 하며 지금 대구에서 송전은 하나 금정동편으로부터 본옥정(本、組町) 황금정까지는 대구에서 보내고 금정서편으로부터 성내정(城內町) 대화정(大和町) 남산정(南山町)은 아즉까지 김천지점에서 송전한다 고 한다

# 定平女性同友 定期總會禁止

## 多數會員은虛行

# 朝鮮共産黨 日本總局事件

## 豫審終結決定書全文 (一九)

(三) 同年十月初頃東京在住朝鮮人社會主義者에 對한 日本領事館警察의 檢擧가 始하게 되자 被告人은 이에 檢擧를 免하기 爲하야 同年十月中旬大阪에 와서 土工을 營하며 잇다가 昭和三年五月東京에 來하야 同年六月上旬前記東京府豊多摩郡戶塚町諏訪在日本朝鮮青年同盟事務所에서 印貞植의 通告에 依하야 朝鮮共產黨日本總局西部「야체이카」에 所屬하고 同月半頃印貞植外一名과 共히 府下西部鐵道高田馬場驛附近同鐵道沿線에서 秘密히 會合하야 檢擧對策을 協議하고 繼續하야 同月末東京府豊多摩郡戶塚源兵衛東京朝鮮勞働組合事務所에서 同黨員朴得鉉으로부터 同黨日本總局宣傳部員이 된 旨의 通告를 受하고 共히 今後의 活動을 協議하잇고

被告人鄭禧泳事鄭禧泳은 朝鮮慶尙南道泗川郡昆明面의 富裕한 農家에 出生하야 晋州私立蓬萊學校를 卒業하고 大正十四年四月勉學의 目的으로 東京에 來하야 日本大學經濟科에 就學한 일도 잇고 少年時代로부터 朝鮮의 ××을 希望하고 東京에 來한 以來交友朴錫洛 李友狄의 感化를 受하야 青年運動에 興味를 가지고 大正十四年十一月在東京朝鮮無產青年同盟에 加入한 後 在日本朝鮮青年同盟執行委員長이 된 經驗이 잇고 所謂青年運動에 自身을 投하고 共鳴하고 잇든 것으로 昭和三年一月上旬東京市小石川區雜司谷町九十二番地 當時被告人居宅勸讀社에서 高麗共產青年會員金相赫으로부터 高麗共產青年會員이 되고 同會日本部高田「야체이카」構成員이 된 旨의 通告를 受하고 右高麗共產青年會가 前記의 目的을 有한 秘密結社인 情을 知悉하며 同構成員이 될 것을 承諾하고 同年六月中右勸讀社에서 朝鮮共產黨員宋昌濂

# 滿洲事件 討議會禁止

## 서울에서도금지되엿다고 海州警察署에서

# 鐵道線路를 里中貫通에反對

## 촌락주안을쌔코가면 일촌파산이된다해 住民은當局에陳情

# 李斗熙被捉

# 悲觀自殺

# 抱病女子

# 新興新豊堤防 築造工事着手

## 일천오백여미돌을 四個年計劃으로

# 洛東江朝運勞働爭議 双方讓步로解決

# 安永青年定總

# 平壤裁縫工組 三回定期大會

# 松海公普校 期成會組織

# 神林市場新設

# 南鮮脚戲大會

# 咸悅分局에 授賞의設置

# 釜山太平館 映畵常設

## 地方開閉

### 楊州

檜泉少年四週年記念 ‖ 양주군회천면(楊州郡檜泉面)에 잇는 회천소년회(檜泉少年會)에서는 설립이래만호공훈이 잇서 그 지방에서 는 물론 린근 각면 유지에까지 칭송을 만히 바더오든 중 십팔일에 창립사주년(創立四週年)을 맛게되엿다는 바 동회간부 제군은 당일에 성대한 긔념식을 거행코자 방금 계반준비에 분망중이라고

### 安城

安靑學院大運動會 ‖ 安靑學院에서는 去十三日午前九時부터 當地公關크라운드에서 例年과 가티 秋期大運動會를 開催하엿는데 當日은 마츰 秋風이 나붓기고 天高馬肥에 適切한 쌔이엿슴으로 全校男女健兒들은 아모 遺憾업시 體育을 發揮하엿스며 싸가쌔 인만큼 一般觀衆은 附近一帶에 人山人海를 일우고 空前에 大盛況으로 終了하엿다고

### 安邊

安邊電燈非難 ‖ 함남안변읍내(安邊邑內)에서는 전긔등에 대한 비난이 자자하다는 바 에 드듸여 빗싼 데다가 전등료(電燈料)는 례방의 전광에 비교하면 밝지도 못하다고 하며 그나마도 독갑이불모양으로 어졋다 살엇다 하야 눈청조치못한 사람은 바느질이나 글도 잘 볼수가 업다 고 하니 될 수 만 잇스면 그 역시 전광(電光)은 정한대로 명을 주지

◇姦夫와逃走한女子 ‖ 原籍을 忠南論山郡伐合面에 둔 徐用化(三七)는 現實의 닥쳐오는 生活難의 살수 업서 今春의 豆溪面豆溪里金末의 行廊에서 寓居하야 生活을 僅僅히 維持하든 中 안해 蔡潤女(三〇)는 男便의 눈을 속여 동리金末의 雇傭으로 잇는 安學俊(三一)과 異性의 사랑을 속삭이다가 去月二十日의 男便이 勞働가고 업는 사이에 姦夫와 共護하고 蹤跡을 감추엇는데 전긔 徐用化는 안해를 일코 엇지 할 줄을 모르다가 所管豆溪駐在所에 가서 안해 차저달라는 눈물 저운 語調로 哀願한 바 잇섯다고

◇松虫猖獗 ‖ 忠南大田郡鎭岑面에는 松虫이 數年前부터 發生하야 漸漸繁殖되는 現狀인데 植林에 主力한 當面에서는 昨年부터 春期一回 三日間式 住民에게 驅除實施에 盡力하엿스나 天然的 寄生虫인 만큼 압흐로 驅除防策이 杳然하야 松虫으로 因한 蔡育林의 侵害가 不少하다 고 一般은 將來를 더욱 憂慮한다고

# 江景 南鮮脚戲大會

| | |
|---|---|
| 場所 | 江景 [illegible] 下 市場 |
| 賞品 | 一等 黃牛一頭 二等 廣木一疋 三、四等 器 其他多數 |
| 主催 | 朝鮮日報江景支局 |
| 後援 | 江景青年會 |

# 第二回咸興少年庭球大會

| | |
|---|---|
| 日時 | 九月二十七日正午부터 |
| 會場 | 咸興永信學校球場 |
| 申請 | 九月二十六日外지 咸興上里基督青年會事務所 |
| 參加金 | 每團에 三組(身長은五尺一寸) |
| 參加金 | 每團에 |
| 主催 | 咸興基督教青年會 |
| 後援 | 朝鮮日報咸興支局 |

# 南朝鮮蹴球大會

| | |
|---|---|
| 時日 | 十月八、九兩日 (陰八月十七、八日) |
| 場所 | 昌原郡內西面 虎溪運動場 |
| 入加金 | 每團體 三圓 |
| 申請期限 | 八月十六日外지 |
| 賞品 | 優勝旗外副賞各等團 |
| 主催 | 馬山蹴球團 |
| 後援 | 朝鮮日報馬山支局 |

# 今夜

## 朝鮮의 初有 八道名唱大會

廿三日밤八時朝鮮劇場에서

入場料 階上 八十錢 階下 五十錢

全朝鮮男女歌手總出演으로滿都人氣集中

主催 朝鮮日報京城西部支局